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수출 4강' 진입을 위한 조건

- 한국 수출시장점유율의 일본 추월 가능성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수출 4강’ 진입을 위한 조건

- 한국 수출시장점유율의 일본 추월 가능성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한·일 수출시장점유율 변화	3
3. 한·일간 수출시장점유율 격차 축소의 원인	8
4. 시사점	13
【HRI 경제 통계】	18

< 요약 >

한·일간 수출시장점유율 격차 축소

- 일-한 시장점유율 격차: '00년 4.8%p에서 '12년(1~7월) 1.5%p로 축소
 시장점유율: 한국 2.7%('00)에서 3.1%('12), 일본 7.5%('00)에서 4.6%('12)
- 선진국 시장 한국 점유율 회복, 일본 점유율 추락
 개도국 시장 한국 점유율 상승, 일본 점유율 하락
 한>일: 선박, 유화, 한~일: 전자, 일>한: 철강, 기계, 자동차
- 한·일 수출시장 점유율 추세가 유지된다면('00년에서 '12년 연평균 0.3%p 축소)
 2017년 이후 한국 수출규모가 일본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

한·일간 수출시장점유율 격차 축소의 원인

수출환경 변화요인	한국의 대응	일본의 대응
① 중국의 저가시장 점유율 확대	저가 시장을 피해 중·고가 시장으로 약진	중·고가 시장 방어에 실패
②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원화의 동반 약세로 가격 경쟁력 우위	엔화의 고평가 방치로 가격 경쟁력 약화
③ 대외판매 전략의 차이	수출 위주의 판매 전략 지속	해외현지생산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수출에 소홀
④ 개도국 시장의 고성장	개도국 시장 개척 확대	선진국 시장 중심 수출전략으로 개도국 시장을 간과
⑤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적극적인 FTA 추진	자국시장 보호에 주력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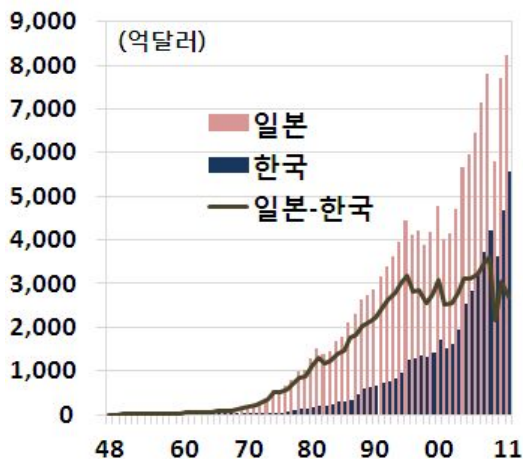
첫째, R&D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화,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환율 및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급속하게 팽창하는 개도국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내수협소성 극복을 위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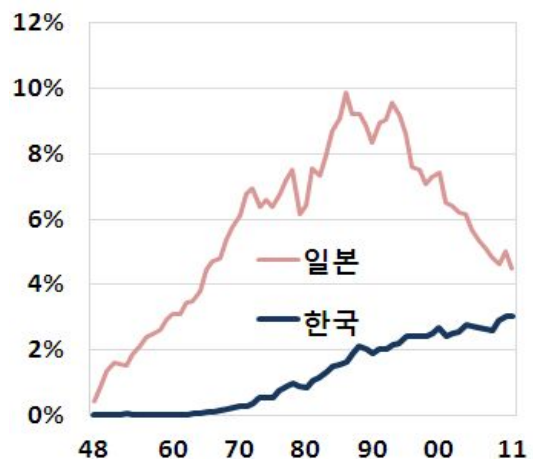
○ 한국이 수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는 추세

-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모 격차는 9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다가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의 수출 규모는 해방을 맞은 직후인 1948년 불과 1,900만 불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현재 연간 약 5,500억 불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함¹⁾
 - 일본의 수출규모도 1948년 2.6억 불에서 현재는 8,000억 불을 상회하고 있음
 - 한편, 한·일 수출 규모 격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규모 차이가 계속 확대되다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3,000억 불 내외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그 격차는 2,673억 불에 불과함
- 세계의 수출시장 점유율에서는 80년대 말까지 한·일간 격차가 확대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냄
 - 일본 제품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0년대 후반 약 10%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최근에는 4%대 중반을 기록함
 - 한편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80년대 말 2%를 넘어서 최근에는 3%를 상회함

<한·일 수출액 규모 추이>



<한·일 수출시장점유율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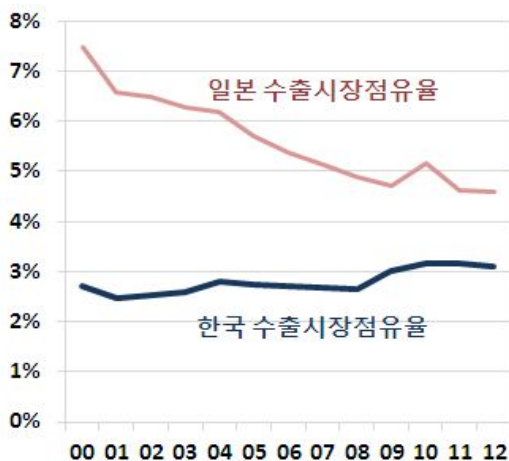
자료: 수출액 규모는 IMF 통계, 한·일 수출 격차 및 시장점유율은 연구원 자체 계산.

1) 한국의 수출규모는 1964년 1억불, 1971년 10억불, 1977년 100억불 1995년 1,000억불을 돌파.

○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 무역 4강에 진입할 가능성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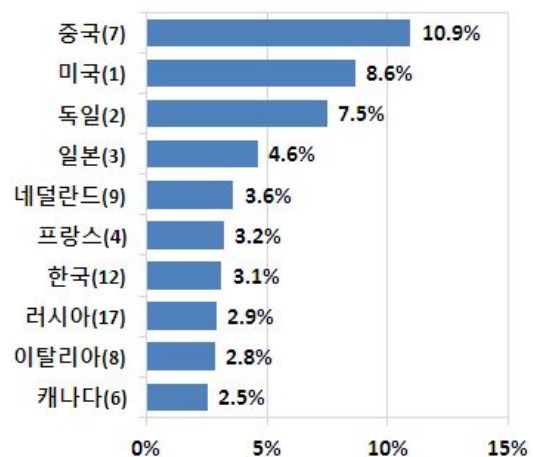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일 간 수출 격차가 더 좁혀지는 모습임
 -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2년(1~7월) 3.1%로 상승한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7.5%에서 4.6%로 하락함
 - 이에 따라 일본-한국 제품 간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0년 4.8%p에서 2012년(1~7월)에는 1.5%p로 축소됨
-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이 세계수출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넘어 세계 무역 4강에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 2012년 현재 세계의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점유율 10.9%)이며, 다음으로 미국(8.6%), 독일(7.5%), 일본(4.6%)의 순서임
 - 한국은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3국은 모두 3%의 점유율 수준을 기록함²⁾
 - **한·일의 현 수출시장 점유율 추세가 유지되면, 2017년 이후 한국 수출 규모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
- 이에 한·일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와 점유율 격차 축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이 수출 4강 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지를 모색해 봄

<최근 한·일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2012년은 1~7월 기준.

<수출시장점유율 상위 10국 (2012)>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1) 2012년은 1~7월 기준.
2) 국가명 ()안은 2000년 순위.

2) 프랑스의 수출시장점유율은 2000년 5.1%에서 3.2%로 하락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 3.6%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중계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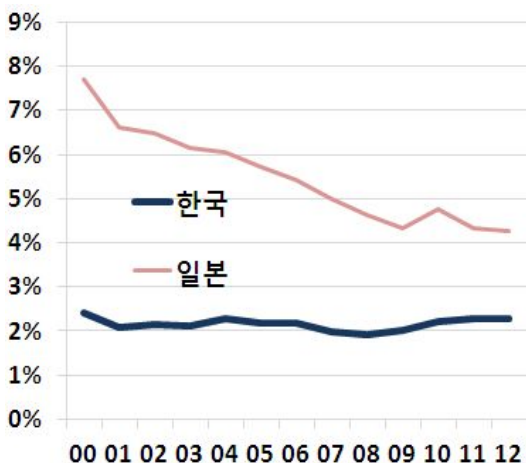
2. 한·일 수출시장점유율 변화

(1) 한·일 수출의 교역대상국별 시장점유율 변화

○ (선진국 시장) 한국 점유율 회복, 일본 점유율 추락으로 격차 축소

- 한국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
 - 2000년 이후 한국산 제품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 내외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반면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7.7%에서 2012년(1~7월)에 4.3%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
-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한국은 대체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하락함
 -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2000년 12% 대에서 최근 6%대 수준으로 하락함
 - EU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일본산 제품 모두 시장점유율이 축소되는 모습이나, 일본 제품의 점유율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한·일의 선진국 수출시장점유율>



<한·일의 주요 선진국 수출시장점유율>

	미국수출시장		EU수출시장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0	3.3%	12.1%	2.7%	7.5%
05	2.6%	8.2%	2.8%	6.1%
10	2.6%	6.3%	2.5%	4.3%
12	2.7%	6.5%	2.1%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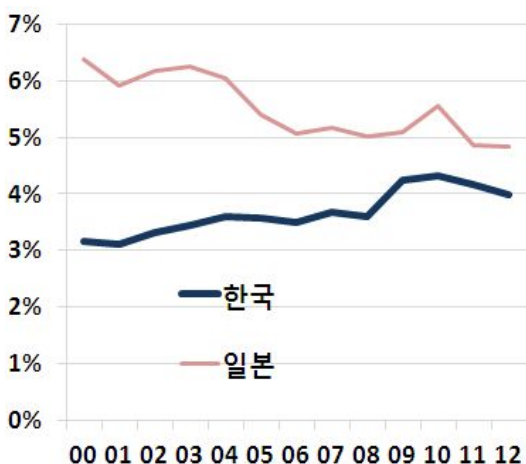
주: 1) 미국수출시장의 2012년은 1~7월 기준

2) EU수출시장은 2012년은 1~9월 기준, 2000년 수치는 2003년으로 대체.

○ (개도국 시장) 한국 점유율 상승, 일본 점유율 하락으로 격차 축소

- 한국의 개도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한국산 제품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0년 3.2%에서 2012년(1~7월)에 4.0%로 상승함
 - 반면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6.4%에서 2012년(1~7월)에 4.8%로 하락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2012년(1~7월) 현재 선진국 시장에서의 양국 간 점유율 격차는 2.0%p인 반면 개도국 시장에서의 격차는 0.8%p에 불과함
- 아시아 주요 개도국중 중국과 ASEAN 시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축소가 빠르게 진행중
 -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9년까지 10%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8%대로 하락, 그러나 일본은 2000년 18.4%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더 크게 하락함
 - ASEAN 시장의 경우 한국산 제품은 2000년 5.6%에서 최근 7%대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4%에서 14% 수준으로 급락함

<한·일의 개도국 수출시장점유율>



<한·일의 주요 개도국 수출시장점유율>

	중국수출시장		ASEAN수출시장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0	10.3%	18.4%	5.6%	24.1%
05	11.6%	15.2%	5.4%	18.6%
10	9.9%	12.6%	7.4%	14.4%
12	8.7%	10.1%	-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주: 1) 2012년은 1~7월 기준

2) ASEAN수출시장은 역내교역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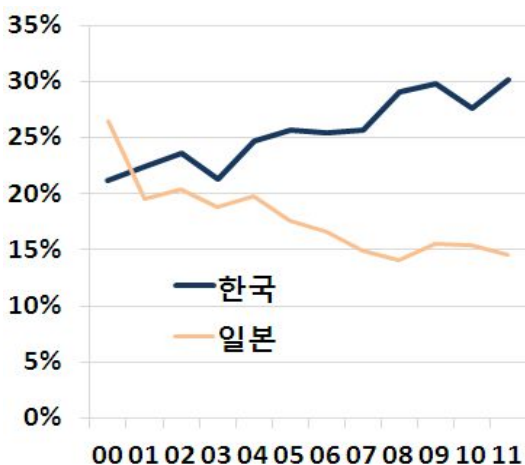
(2) 한·일 수출의 주요 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

○ 한국이 일본보다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은 선박, 유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품목은 전자이며, 한·일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되는 품목은 철강, 기계, 자동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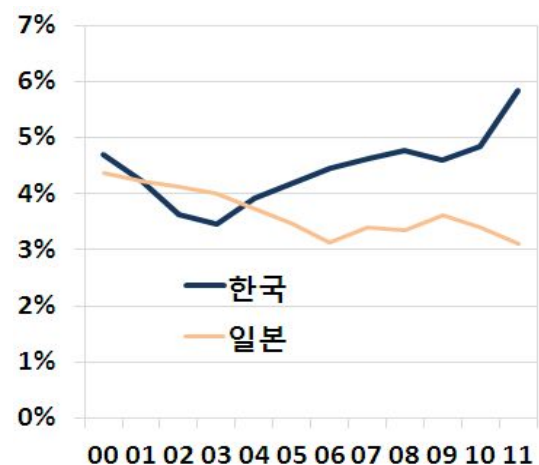
- (선박) 2001년 한국산 선박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임
 - 한국 선박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1.2%에서 2011년 30.2%로 상승함
 - 일본 선박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6.4%에서 2011년 14.5%로 하락함

- (유화) 한국산 유화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일본을 넘어섰으며 최근에 들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됨
 - 한국 유화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7%에서 2011년 5.8%로 상승함
 - 일본 선박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4%에서 2011년 3.1%로 하락함

<한·일 선박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



<한·일 유화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



자료: UN COMTRAD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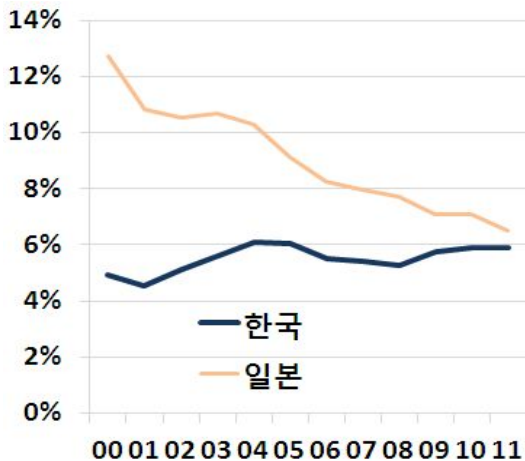
주: 1) 선박은 HS 코드 89

2) 유화는 HS 코드 29, 2710, 2712, 2713, 2714, 2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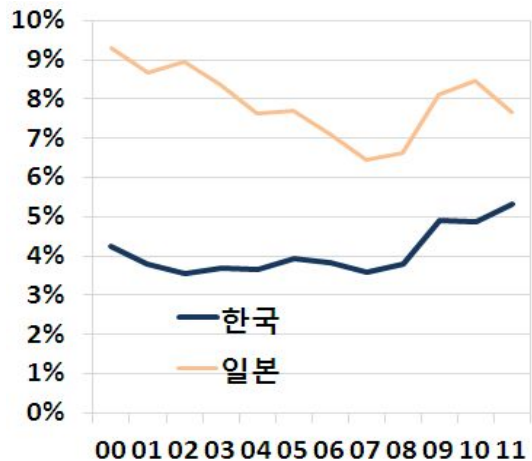
- (전자) 한국과 일본 전자 제품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0년 7.8%p에서 2011년 0.6%p로 빠르게 축소됨
 - 한국 전자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9%에서 2011년 5.9%로 상승함
 - 일본 전자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12.7%에서 2011년 6.5%로 하락함
 - 한편 전자 제품중 반도체 부문의 경우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대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2000년 20.8%p에서 2011년 5.9%p로 축소됨³⁾

- (철강) 일본이 우위에 있는 철강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 축소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격차 폭이 3%p 내외에서 횡보하는 모습임
 - 한국 철강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3%에서 2011년 5.3%로 상승함
 - 일본 철강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9.3%에서 2011년 7.7%로 하락함

<한·일 전자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



<한·일 철강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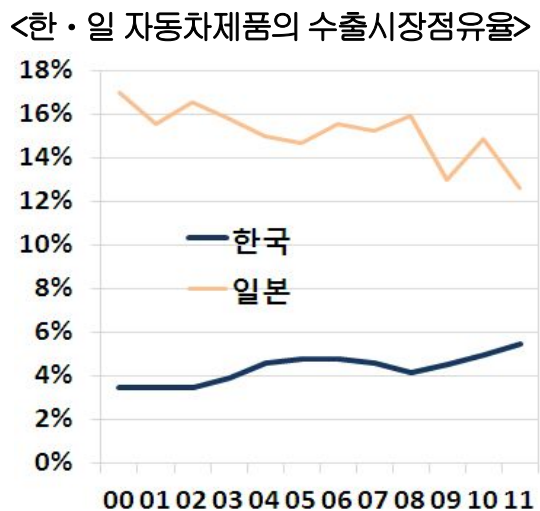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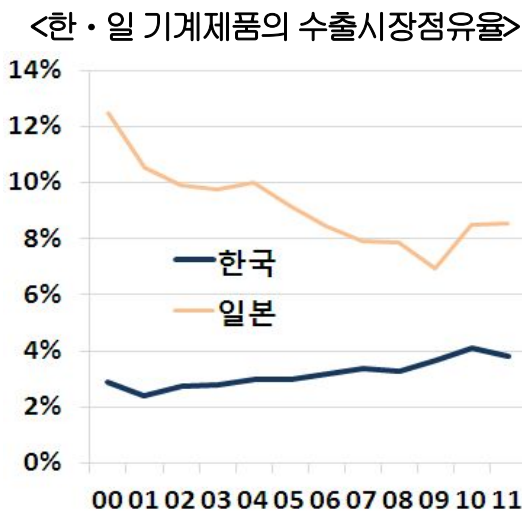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1) 전자는 HS 코드 85
2) 철강은 HS 코드 72, 73.

3) 반도체의 2011년 현재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일본 10.5%, 한국 4.6%.

- (기계) 한국과 일본 기계 제품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0년 9.6%p에서 2011년 4.7%p로 축소되는 추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만을 놓고 본다면 점유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됨
 - 한국 기계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9%에서 2011년 3.8%로 상승함
 - 일본 기계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12.5%에서 2011년 8.5%로 하락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일간 기계 제품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임

- (자동차) 일본이 우위에 있는 자동차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이며,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0년 13.6%p에서 2011년 7.1%p로 축소됨
 - 한국 자동차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4%에서 2011년 5.5%로 상승함
 - 일본 자동차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17.0%에서 2011년 12.6%로 하락함
 - 현재 자동차 부문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한국이 일본에 뒤져 있는 품목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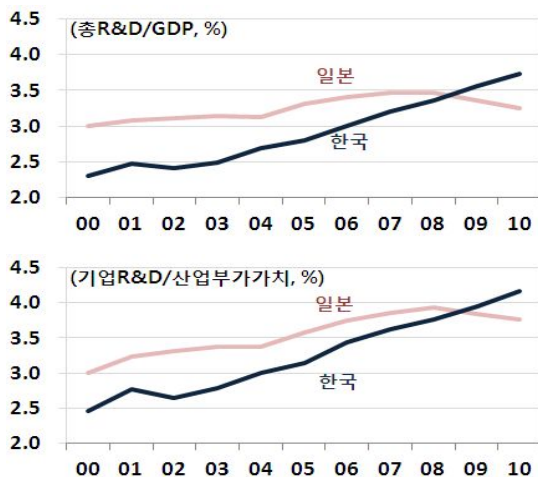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1) 기계는 HS 코드 84, 90, 91
 2) 자동차는 HS 코드 8701, 8702, 8703, 8704, 8705.

3. 한·일간 수출시장점유율 격차 축소의 원인

① 중국의 빠른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한국은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일본의 중·고가 제품 시장을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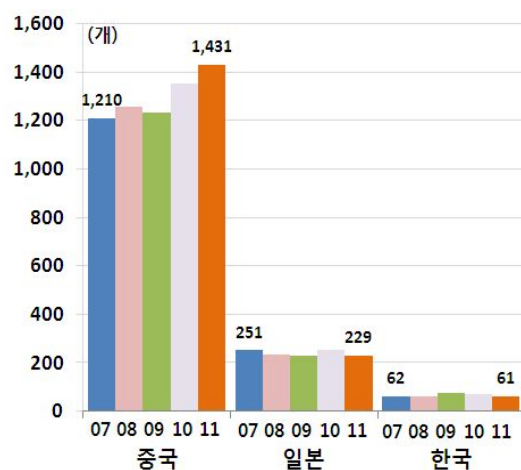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대규모 경제권인 중국의 국제 무역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중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 약 3.9%로 순위로는 6위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0.9%로 세계 1위를 기록함
 -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중국의 수출 급증이 주요 수출 강국들의 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킴
- 그러나 한국은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여 저부가·저기술 제품 시장에서의 잠식되는 것으로 일본이 주력하는 고부가·고기술 시장에서 만회함
 - 경제 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R&D 투자 비중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등 상품수는 2007년 1,210개에서 2011년 1,431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일본은 같은 기간 251개에서 229개로 22개가 감소한 반면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한·일 R&D 비중 추이>



자료: NTIS, OECD.

<한·중·일 세계시장 1등 품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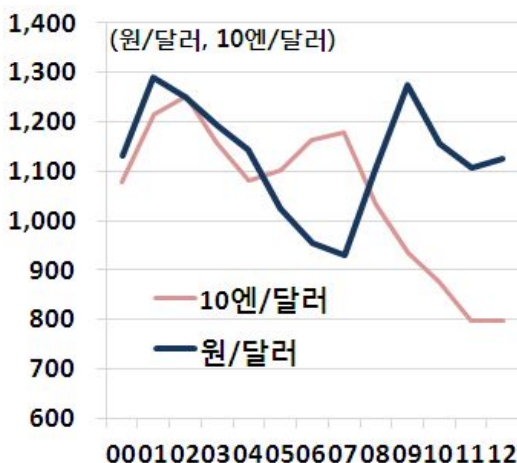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4).

4) 강석기(2013), 추격하는 개도국, 쫓기는 한국 - 2011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

②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에 대응하여 일본은 엔고를 방치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 취약성으로 상대적 약세를 시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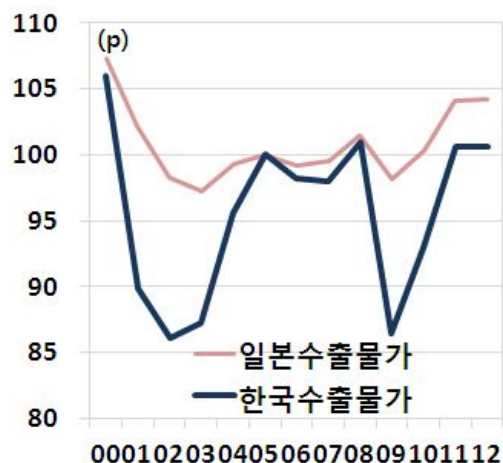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엔화는 추세적인 강세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냄
 - 엔/달러 환율은 2000년 평균 108엔에서 시작하여 2007년까지 110엔선 이상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80엔까지 기록함
 - 반면 원/달러 환율은 2006년과 2007년 평균 1,000원선을 하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1,100원대 이상에서 유지되는 모습임
-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일본 수출물가지수는 항상 한국보다 높았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경쟁력에서 한국 제품에 열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 전기간에 걸쳐 일본 수출물가지수는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한일간 수출물가 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이 높은 수출물가 수준을 기록함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연평균 환율 기준.

<한·일 수출물가지수(2005=10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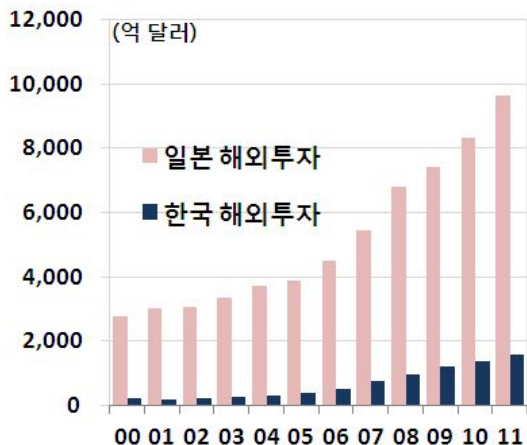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주: 2012년은 1~5월 평균

목 분석.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Vol. 12, No.3.

③ 해외시장 공략 방법에서 일본은 현지생산, 한국은 수출 위주로 접근함에 따라 일본의 해외투자 대체효과(FDI Substitution Effect)가 더 크게 나타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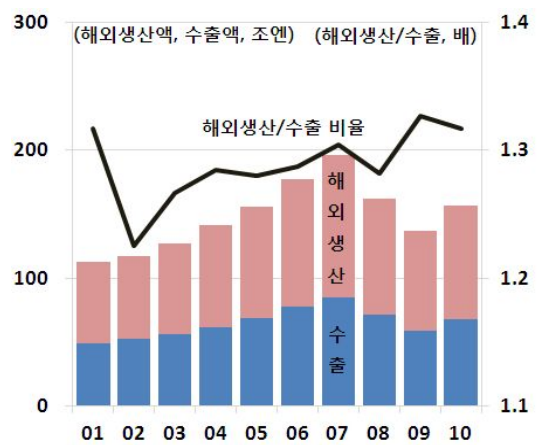
- 일본은 높은 생산비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 of manufacturing)로 수출보다 해외생산 규모가 큰 구조가 지속중임
 - 일본의 해외투자스톡은 2011년 기준 약 9,600억 달러규모로 한국의 1,600억 달러보다 약 6배 높은 수준임(경제규모는 일본이 5배 높은 수준)
 -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해외생산 규모는 최소 약 89조 엔으로 수출 규모 68조 엔의 1.3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⁶⁾
- 반면 해외 현지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은 해외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해외생산이 유발하는 수출 효과도 아직은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 연구원의 자체 계산에 의하면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수출 비율은 2005년 약 24%에서 2010년 5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⁷⁾

<한·일 해외투자누적액(stock) 추이>



자료: UNCTAD.
주: FDI outflow stock 기준.

<일본의 해외생산/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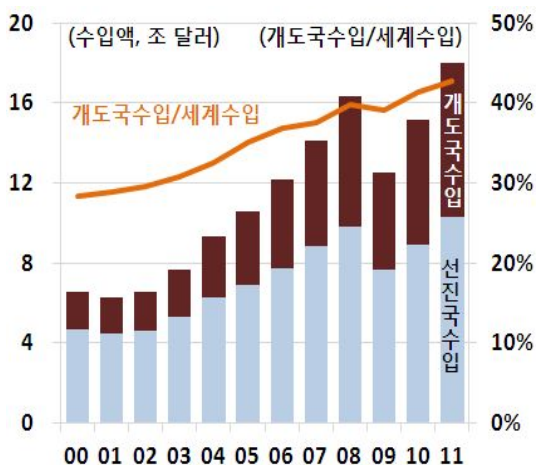
자료: METI, JETRO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회계연도 기준.

- 5) 해외투자는 초기 단계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유발하는 보완효과가 강하나 성숙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때문에 보완효과는 감소하고 수출을 대체하게 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되는 내용은 이은석 등(2012), 제현정(2012), 지식경제부(2012)를 참조하기 바람.
- 6) 일본 해외생산 규모는 METI의 설문조사 통계이기 때문에 본문의 수치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 7) 해외생산/수출 비율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한 것으로, 이은석 등(2012)의 우리 제조업의 2005년과 2010년의 해외생산 비중($\frac{\text{해외법인매출액}}{\text{해외법인매출액} + \text{국내법인매출액}}$)인 6.7% 및 16.7%의 수치와 산업연관표상의 제조업 수출 및 산출액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임. 참고로 지식경제부(2012)는 동일 연도에 대하여 24.6% 및 51.4%로 각각 추정하고 있음. 단, 본문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은 기초 자료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경제산업성의 설문 대상과 응답률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함을 밝힘.

④ 고성장 개도국 시장에 대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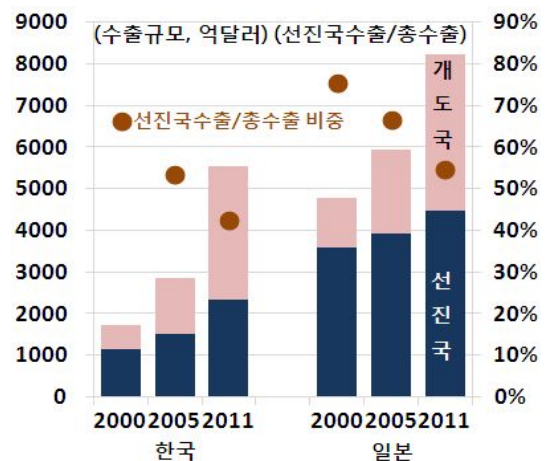
- 개도국 및 신흥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한 반면 미국, 유럽 등은 수년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개도국의 수입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급증함
 - 2000~2012년 선진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에 불과하였으나 개도국은 6.2%를 기록함
 - 이에 따라 개도국의 구매력도 높아져 개도국 상품수입/세계상품수입 비중은 2000년 28%에서 2011년 43%로 급증함
- 이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시장 수출 확대 전략이 주효했던 반면 일본의 선진국 시장 지향형 수출 전략은 타격을 입게 됨
 - 한국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선진국 지향형 수출 전략을 추구
 - 2000년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보이면서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됨
 - 일본의 2000년 기준 선진국 수출/총수출 비중은 70%대에 달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도 약 54%로 한국의 42%와 큰 차이를 나타냄

<선진국 및 개도국의 수입규모 추이>



자료: METI, JETRO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한·일의 경제권별 수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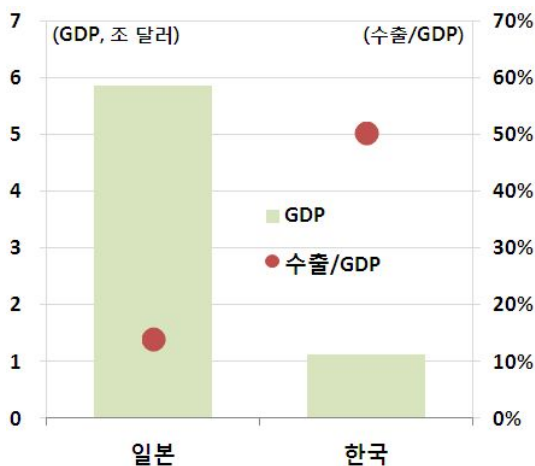


자료: IMF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⑤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일본은 자국시장 보호에 주력(Jalapagos Effect)⁸⁾한 반면 한국은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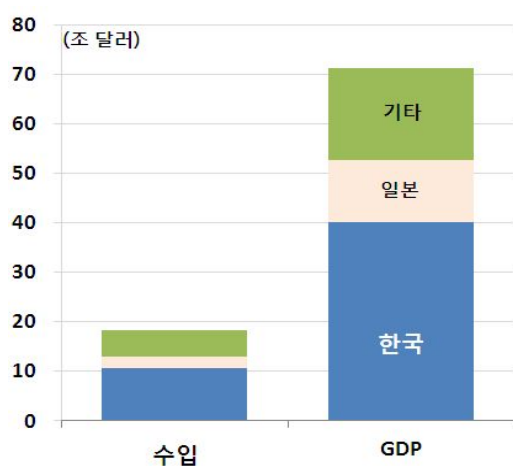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일본의 명목 GDP 규모는 5.9조 달러로 한국의 1.12조 달러의 5배 가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보유함
 - 반면 수출/GDP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은 14%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0%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성을 가짐
- 이러한 차이는 FTA에 대한 태도의 적극성으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 영토⁹⁾는 2012년 기준 40.2조 달러로 전세계 GDP의 60%내외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12.5조 달러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 결국 일본 경제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가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원인이 되고 일본 기업들이 세계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의 선호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짐

<한·일의 수출/GDP 비중(2011년)>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한·일 경제영토(FTA발효·체결 기준)>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수출시장은 2011년, GDP는 2012년 기준.

8) 잘라파고스(Jalapagos)는 일본(Japan)과 갈라파고스(Galapagos)의 합성어. 갈라파고스 효과란 국내시장에 안주하다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9) 자국 GDP와 발효·체결된 무역협정 상대국의 GDP를 합한 규모임.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EPA를 체결한 국가 및 경제블록은 ASEAN, 멕시코, 칠레, 스위스, 인도, 페루이며,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FTA가 발효되는 국가 및 경제블록은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이며, 체결된 국가는 터키, 콜롬비아임.

4. 시사점

-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일본을 넘어 '수출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및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환율 및 통화 정책, 투자 여건 개선, 개도국 시장 확보, FTA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수출품의 고부가화 및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 제품의 시장 잠식은 아직은 저부가·저기술 제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고부가·고기술 제품의 개발과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High End)제품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진 원천기술에 대하여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의 경쟁력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는 국제 표준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환율 및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 최근의 한·일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 축소는 일정 부분 원/엔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상대적 우위, 한국의 상대적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우선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락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통화당국의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막고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금융·세제상의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기업 프렌들리 정책 지속 등의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¹⁰⁾
 - 전반적인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U턴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 향후 미래 주력 산업으로 부상 가능성이 높은 환경, 신재생에너지, 융합 등의 산업화를 위한 신규 투자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이 요구됨
 - 또한,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민주화 등의 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함
-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요소 고비용 및 가격경쟁력 하락 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

10) 김민정(2012),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12-33(통권 제 504호)에서 인용함.

넷째, 급속하게 팽창하는 개도국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 시장 수요 측면에서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시장의 급성장을 주목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GCC¹¹⁾, ECOWAS¹²⁾, ABC¹³⁾, 바트경제권¹⁴⁾ 등의 신흥 시장의 발굴 및 진출에 일본보다 한 발 앞서는 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 시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내수협소성 극복을 위해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 정부의 FTA 허브 구축 전략상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중국, 일본, 호주에 대한 적극적인 협정 추진을 통해, 남북(南北)축이 동서(東西)축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이미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획득과 활용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11)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 산유국이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2)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의 회원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의 15개국임.

13)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

14)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일컬으며,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을 바트경제권이라고 지칭함.

< 참고 자료 >

- 강석기(2013), "추격하는 개도국, 쫓기는 한국 - 2011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석,"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Vol. 12, No. 3.
- 김민정(2012),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과급 영향,"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12-33 (통권 제 504호).
- 이은석 · 이정욱 · 박나연 · 김유신(2012),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Discussion Paper Series, 한국은행, No. 2012-4.
- 제현정(2012),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 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Vol. 11, No. 46.
- 주 원(2012), "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한·미 FTA 활용 방안", 상장협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65호(2012 봄), pp. 36~52.
- 지식경제부(2012),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도자료(2012년 12월 17일)
- 한국수출입은행(2011a),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 한국수출입은행(2011b),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현대경제연구원(2012),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시장 발굴」 지식경제 2012 가을호.
-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호.
- METI(2011), Survey of Trends in Business Activities of Foreign Affiliates.
- METI(2012),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2012 - Extending the Frontiers of Growth through Global Linkages.
- OECD(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Complements or Substitut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1999/03. **HRI**

【별첨】 보고서상 품목 기준

<보고서상의 수출 품목과 HS 코드 매칭>

품목	HS코드	HS 품목명(무역통계 기준)
석유화학	29	유기화학품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오일
	2712	석유젤리 및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석유왁스·슬랙왁스·오우조커라이트·갈탄왁스·토탄왁스 기타 광물성왁스와 합성 또는 기타의 공정에 따라 얻어지는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
	2713	석유코크스·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2714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역청질혈암·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5	역청질혼합물 (천연 .석유아스팔트 ,광물성 타르 .타르피치를 기재로한 것)
철강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
자동차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선박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기계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전자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반도체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3	3.6	2.8	2.3	1.5	1.5	2.0	3.1	
	민간소비(%)	1.1	2.3	1.6	1.1	1.6	2.8	1.8	2.5	
	건설투자(%)	-2.1	-5.0	1.5	-2.1	-0.2	-4.1	-1.5	2.2	
	설비투자(%)	-3.3	3.7	8.6	-3.5	-6.5	-5.1	-1.8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115	265	26	112	147	-	410	285
		무역수지(억 \$)	92	308	12	97	75	100	285	259
	수출(억 \$)	1,404	5,552	1,349	1,402	1,331	1,400	5,481	-	
	증감률(%)	(9.0)	(19.0)	(3.0)	(-1.7)	(-5.7)	(-0.3)	(-1.3)	(5.6)	
	수입(억 \$)	1,313	5,244	1,336	1,305	1,256	1,299	5,196	-	
	증감률(%)	(13.4)	(23.3)	(7.8)	(-2.8)	(-6.9)	(-1.0)	(-0.9)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4.0	3.0	2.4	1.6	1.7	2.2	2.5	
실업률(%)		2.9	3.4	3.8	3.3	3.0	2.8	3.2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44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